

# 소록도~거금도 있는 고흥 'S라인' 뜬다

<sightseeing·sensitive>



'블루오션'

다도해 <27>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고흥편 - 거금도·소록도·나로도

지난 2011년 거금대교가 완공되면서 고흥과 연결된 거금도는 보다 쉽게 가볼 수 있게 됐다. 고흥군 도양읍에서 소록대교~소록도~거금대교~거금도로 이어지는 라인은 고흥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전남에서는 진도, 완도, 돌산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거금도는 과거 큰 금맥이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작은 제주도'로도 불린다. 절경이 펼쳐지는 해안도로와 섬을 관통하는 중심도로가 있어 제주도와 흡사하고 곳곳에 다양한 자원들이 산재해 있어 충분히 제주도처럼 즐길 만하다는 데서 비롯됐을 것이다.

면적이 65.68㎢로 고흥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인구가 2507세대에 4913명이 거주하고 있다. 금산면사무소를 시작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병원 및 약국 등을 갖추고 있는데다 연도까지 돼 있어 섬 주민의 불편은 과거보다 현저히 줄었다. 주요 소득은 농업과 어업에서 발생하는데 밭작물에서는 양파(소득액 67억3500만원), 수산물에서는 미역(88억8200만원), 다시마(86억5000만원), 전복(58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거금도에서 가장 좋은 모래사장으로서 유명한 이 해수욕장은 오히려 예전만 못했다. 5~6년 선박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를 쌓았는데, 그 뒤 자갈들이 해변에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인근에서 만난 김주연(60)씨는 "이곳이 여항도 아닌데 굳이 방파제가 필요했는지 알고 싶다"며 "개발 전에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세심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금해수욕장을 뒤로하고 오전항을 향해가는 도중 경관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소원동산'에 올랐다. 청정 바다와 모녀도, 대취도, 독도, 부아도 등 고흥의 무인도들이 마치 그림처럼 엮여진 장관을 보니 저절로 탄성이 나왔다.

적대봉 아래 조성된 거금생태숲은 다양한 동식물 자원의 식생과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계곡관찰로를 따라 걷다보면 후박나무, 이팝나무, 소사나무, 비자나무 등 11종의 난대식물 군락지와 함께 거금도의 야생화들을 볼 수 있다.

## Sightseeing 볼거리 풍성

‘복층’ 거금대교, 자전거·사람 통행 해안도로 절경 거금도 ‘작은 제주도’ ‘소원동산’에 오르면 다도해 장관 난대식물 군락지 거금생태숲

지난 8월 13일 오전 소록도를 거쳐 거금대교에 들어섰다. 독특한 것은 2028m에 달하는 이 다리는 복층 구조로, 아래층에는 자전거와 사람이, 윗층에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다리를 건너니 휴게소에는 10억원 넘는 금액이 투입된 동상이 보였다. 전국 공모를 통해 건립된 ‘꿈을 품은 거인’은 마치 그동안 가려져 있던 고흥의 잠재력을 표현하고 있는 듯 보였다.

금산면은 유인도인 거금도, 연흥도와 30개의 무인도로 구성돼 있다. 운상일 금산면장은 “거금대교 개통 이후 적대봉을 찾는 등산객들이 크게 증가했다”며 “그런데 젊은층들은 물로 나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연륙된 뒤 물의 편리함을 알아버린 젊은층들의 ‘이사 러시’가 한동안 계속됐다는 것이다.

짧은 일정을 감안해 거금도의 명소들을 찾아나섰다. 해안도로를 타고 거금도에서 가장 유명한 익금해수욕장으로 향했다.

## Sensitive 감성 여행

소록대교 개통 뒤 외지인으로 북적 소록도공원 의료인·성직자 공격비 일제강점기 벽돌 건물 문화재 보존 아픔의 역사로 ‘교훈’ 주는 장소 각광

서둘러 거금도를 나와 소록도로 향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거주지인 이곳은 여전히 700여 명의 환자와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왔을 뒤 서서히 일반인들의 발길이 늘었고, 지난 2009년 소록대교가 개통되면서 지금은 여느 관광지처럼 많은 외지인들이 오가고 있다. 지난 8월 13일 목요일,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면적 3.79㎢의 이 섬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전남에 전지훈련차 방문한 국가대표 사격선수들을 이끌고 소록도를 찾은 장경미(여·47)씨는 “1년에 1~2번씩은 오는데, 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타 지역 선수들에게 보여줄만한 자원이자라고 생각해 소록도를 찾았다”고 말했다. 한센병 환자들이 직접 조성해 지난 1940년 완공된 소록도공원을 걷다보면 소록도에서 자원봉사를 한 벨기에 의사, 오스트리아 수녀 등의 공격비와 함께 4면의 기단에 ‘한센병은 낫는다’라는 글귀가 적



소록도공원 가운데 구라탑(救癩塔). 기단 4면에 ‘한센병은 낫는다’는 글귀가 적혀있다.

힌 구라탑(救癩塔) 등을 볼 수 있다. 당시의 암울함과 그 속에서 희망을 던져준 의료인과 성직자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겨볼 수 있을 것이다. 김시실, 감금실 등 한센병 환자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붉은색 벽돌 건물들은 ‘등록문화재’로 보존돼 있다. 나무 데크가 깔린 소록도 산책길을 걷는 외지인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걸으며, 주변 경관을 음미하고 있었다. ‘아픔’과 ‘고통’의 역사가 지역의 관광자원이 되는 것은 물론 방문객에게 ‘교훈’을 주는 장소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끝>

/고흥=주각중기자 gjiu@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로1대교 앞에 펼쳐진 고흥의 갯벌에서 반지락을 캐는 주민들. 물의 평야처럼 너른 갯벌은 세대를 이어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 바다와 가까운 갯벌의 생산성이 높고, 따라서 가장 비싸다. 드론으로 촬영했다.

나로1대교 인근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평야같은 갯벌서 반지락 캐는 주민들

## “47년간 고흥 갯벌에 의지 농사보다 나으니 힘들어도...”

우주센터로 유명해진 나로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며, 기암괴석과 깨끗한 바다, 소나무숲, 유자나무, 계단식 논밭과 사철 따듯한 날씨 등을 자랑했던 나로도는 이제 우주센터가 있는 곳으로 더 유명하다. 고흥읍에서 25km 떨어진 해상에 있어 교통 사정이 좋지 않았으나, 1994년 고흥군과 내나로도를 잇는 나로대교, 1995년 내나로도와 외나로도를 잇는 나로2대교가 놓인 후 나아졌다. 수심이 얕은 해수욕장과 풍부한 갯벌, 다양한 어족자원 등이 장점이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등 성수기 외나로도 우주센터 입구 인근에 있는 우주과학관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주중에 600명, 주말 1000명씩 찾고 있다. 우리나라 유일한 우주센터를 소개하는 우주과학관으로는 콘텐츠가 빈약하다는 느낌이다. 그 주변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민박집, 편의점 등이 자리하고 있다.

나로1대교 인근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앞. 마치 평야처럼 드넓은 갯벌에서 반지락을 캐고 있는 100여명의 주민들을 발견했다. 돌로 격자형의 구역을 표시해줬는데, 이옹백(75·강진자(72) 부부가 물과 가까운 갯벌에 반지락밭을 조성하고 있었다. 취재진에게 말을 건네면서도 호미질을 쉬지 않던 이들 부부는 47년을 고흥 갯벌에 의지해 함께 살았다. 이 할아버지는 “부자들은 바다와 가까운 갯벌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농사일보다는 수입이 좋으니 이렇게 힘든 갯벌에서 일하는 것 아니겠냐”고 미소지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휴·안·림**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 로얄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키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빔프로젝트, 식사테이블 장식, 페백실 대여, 혼구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